

공동체 소식

대림시기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결국 전에 계셨고 (첫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에는 또한 **대림환을 만들고 대림초를 켜니다.** 대림환은 늘 푸른 상록수 잎으로 엮어 만드는데 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림초는 대림시기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늘려가며 켜 수 있도록 4개로 만듭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전까지 미사전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대영광송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안내

- **12월 15일(일) 교중미사 중**
- 대상자는 15일(일) 10시20분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 꽃봉헌 접수

- 15일(일)까지 전례부로 접수해 주십시오.

평협회 안내

- 15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성탄예술제 신청안내

-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 **성탄 예술제**에 참가할 개인/구역/단체는 평협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제20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 피정

- 일시: 2019년 12월 26일(목)~28일(토)
- 장소: Holy Name Retreat Center, 430 Bunker Hill Rd. Houston, TX 77024
- 초대강사: Fr.이경 바오로, Fr.신용문 야고보, Fr.이종만 세례자요한, Fr.김인 요셉
- 지도신부: Fr.정건석 프란치스코
- 문의: 홍권의 레오(713-834-5430) 또는 박진연 스텔라(956-566-1796), 참가신청서 작성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정 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영어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일미사 신청 안내(\$60)

- **매일미사 책 1년치 신청받습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12월 8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성직자/수도자 은퇴 기금 모금**
- 12월 25일 Catholic Charities 가톨릭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반모임 안내 (성당계시판 참조)

- 1구역 **15일(일) 오후 1시** 박태주 로마노 가정
- 2구역 **13일(금) 오후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 3구역 **20일(금) 오후 7시** 강승석 도미니코 가정
- 4구역 1반 **21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 4구역 2반 **20일(금) 오후 7시** 안병환 발렌티노 가정

서명운동/음식준비/대청소

- 낙태반대 서명운동과 추수감사 음식준비 및 대청소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례 성가

| | 입 당 | 예 물 | 성 체 | 파 견 |
|-----|-----|-----|-----|-----|
| 금 주 | 481 | 217 | 501 | 92 |
| 차 주 | 93 | 41 | 157 | 9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제2독서 |
|-----|----------|---------------------|
| 금 주 | 박태주(로마노) |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
| 차 주 | 김대연(요셉) | 첫영성체 아이들 |

주일미사 복사

| | |
|-----|---------------------|
| 금 주 | 차민서(임마누엘), 김지안(요한) |
| 차 주 | 김정빈(바오로), 김정훈(로베르토)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김병철(베네딕도), 강승호(아오스딩) |
| 차 주 | 김태중(예레미야),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4조: 김화년, 안현숙, 김희진 |
| 차 주 | 5조: 김말자, 박계숙, 박옥희, 박영숙, 김수연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 12월 22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성탄맞이)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지만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인권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얼마나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불안정하고 잘못된 생활에서 새로운 희망과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 1 독 서 : 이사야서 11,1-10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화 답 송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5,4-9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명의 말씀

'뒤에 오시는 분'(마태 3,11)을 기다



"회개하여라."(마태 3,2) 세례자 요한은 더 이상 간결할 수 없고 더 이상 클 수 없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마디로 세상에 외칩니다. 이 외침은 예언자에서 예언자로 마치 햇불 하나 전달되듯 전해져 온, 사고방식과 생활 자체를 온전히 바꾸어 구원과 생명을 구하라는 애타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도 덧붙이지 않았던, 회개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분노, 두려움, 캄캄함 등 이전 예언자들의 위협과는 매우 다르게, 밝고 즐거운 희망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종말론적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 막 세상에 들어오는 위대한 사건, '기쁜 소식',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선포자입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엄격한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가까이 오는 종말론적 구원을 얻겠다는 각오로 세례를 받으라고, 대단히 어두운 분위기로 사람들을 강하게 일깨웠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태도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죄를 멀리하고 하느님을 선택 하라는, 그리고 단지 '사고방식의 전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새로운 생활을 분명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받는 하느님의 특전도 개인의 '회개'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인 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마태 3,10)고 하면서, 찰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화급하게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뒤에 오시는 분"(마태 3,11)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걸만을 깨끗 하게 해주는 물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느 님의 성령을 주시는 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종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마태 3,12)이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인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어두움과 신약의 밝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두움 속에 있음을

자각한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시금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여시는 분, 메시아, 즉 마지막 때의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어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참 사랑', '분별 있는 사랑'을 살도록,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열매의 시작



사람들은 열매의 시작이 봄의 꽃이라 생각하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열매의 시작은 작년 겨울을 앞두고 만들어 놓은 겨울 눈에서 시작된다.

열매는 갑자기, 한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빠야따스'에서 - 1

제가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간 곳은 '빠야따스Payatas'라는 곳입니다. 빠야따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빠야따스'라는 공식 이름대신 필리핀 현지어로 '약속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루빵빵아교'라는 자신들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매립장이 생기면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 현재는 비록 쓰레기를 뒤져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고달픈삶이지만 언젠가는 가난한 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신학생 때였습니다. 실제로 본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동네 뒷산만큼 쌓여있는 '쓰레기 산',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집이라고 표현하기조차 힘든 거적막이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영성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기대할 수도 없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와 가스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만들어낸 더럽다 못해 시커먼 빗갈의 도랑물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말리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이 되어 버린 탓이겠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

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왔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제가 찾아갔던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마치 산사태처럼 쓰레기 산이 무너지며 집들을 덮쳐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 결국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삶을 마감해야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사제가 되어 이곳으로 자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 동양하고 있는 너무나 야위고 초라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워 하느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 노인을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셨나요?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하느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대책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 (중화관구)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캘리그래피 강신성요한